

치조골 결손부의 implant식립을 위한 골유도재생술의 임상증례

김용균*, 김형섭

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임플란트는 타이타늄이 경조직인 골과 직접 결합한다는 골유착의 개념하에 지난 30여년 이상 결손치아를 대체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 이해와 적용에 있어 많이 발전해 왔으며,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의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 임플란트의 장기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bone quality와 충분한 bone volume이 존재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.

그러나 Edentulous ridge는 발치시 치조골 흡수가 동반되어 vertical, bucco-lingual ridge defect가 발생하게 된다. 치주염이나 외상이 동반되었을 때 결손부의 크기는 더욱 커져서 임플란트 식립시 fixture노출과 stability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

임플란트 식립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조제 증대술이 발전되었으며,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자가골 이식, 차단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.

본 증례에서는

- 1) chin에서 구강내 자가골을 채득하여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 후 임플란트 식립,
- 2) 실패한 임플란트 제거후 골결손이 예상되는 발치와에 allograft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.